



역대 장관 영남 독식... 호남 소외 수십년

<10> 해양수산부

해양수산부는 해운항만청과 수산청을 모태로 설립됐다. 해운항만청은 지난 1976년 건설교통부 소속의 항만청으로 신설된 후 1977년 해운항만청으로 이름이 바뀌었다. 수산청은 지난 1948년 상공부의 수산국으로 출발, 1961년 농림부 소속으로 전환했으며 1966년 정부조직법 개정으로 설립됐다. 1996년 8월 수산청과 해운항만청이 통합되면서 해양수산부가 신설됐다.

해양수산부의 인맥 구조는 농림부와 극명한 대조를 이룬다. 농림부가 대표적 농도인 호남 출신들이 대거 조직의 수장으로 기용된 반면 해양수산부는 황반, 수산의 중심인 부산을 중심으로 한 영남 인맥이 강세를 띠었다.

실제로 해양수산부가 출범하기 이전



5공~문민 중반까지 수산청장 전윤철씨 유일 현 고위급 공무원 39명 가운데 호남 9명 불과

인 제5공화국부터 문민정부 중반(1996년)까지 임명된 7명의 수산청장 가운데 영남 인맥은 5명을 차지한 반면, 호남 인맥은 전남 출신인 전윤철씨가 유일했다. 서울 출신도 1명으로 나타났다.

이에 반해 해운항만청장은 지역적 안배가 적절히 이뤄졌다는 평가다. 같은 기간 임명된 12명의 해운항만청장 가운데 영남 인맥이 3명, 호남 인맥도 3명으로 집계됐다. 전북 출신의 진백, 강동석 씨와 전남 출신의 염태섭 씨 등이다. 이

밖에 서울 출신이 3명, 강원 출신이 2명, 북부 출신이 1명으로 집계됐다.

그러나 문민정부 중반 이후 출범한 해양수산부의 수장은 영남 인맥이 뚜렷한 강세를 보였다.

문민정부 중반부터 국민의 정부까지 기용된 9명의 해양수산부 장관 가운데 영남 인맥은 5명(신상우, 조정제, 정상천, 노무현, 유상남)에 이르면 반면 호남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이에 반해 충청 출신은 국민의 정부

시절 4명(김신길, 이창규, 정우택, 김호식)이 임명되는 등 크게 약진했다. 국민의 정부가 DJP 연합에 의해 출범한 영향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국민의 정부 시절 현 노무현 대통령이 해수부 장관으로 기용된 점도 눈에 띈다. 다만, 5명의 차관 가운데 호남 인맥은 2명으로 나타나 그나마 체면치레를 했다는 평가다. 광주 출신의 장승우씨와 전남 출신의 유정석 씨가 기용됐다. 이밖에 수도권 출신 2명, 제주 출

신 1명 등으로 나타났다.

참여정부 들어서도 해수부의 영남인맥 강세 기조는 유지됐다. 6명의 해양수산부 장관 가운데 영남 출신이 4명(허성관, 최낙정, 오거돈, 김성진)인 반면 호남인맥은 광주 출신의 장승우씨가 유일했다.

참여정부의 해양수산부 차관 4명은 경남, 서울, 강원이 각 1명씩으로 집계됐으며 현재는 지난 지방선거에서 순천시 장 후보로 나서 고배를 들었던 전남 출신인 이은씨가 맡고 있다.

한편, 해양수산부가 최근 국회에 제출한 고위공무원단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39명의 고위공무원 가운데 9명이 호남 출신으로 나타났다.

광주·전남 출신으로는 최창현 해양정책본부장(광주)을 필두로 김상수 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전남), 도덕환 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장, 중앙공무원교육원에 파견된 김이운 전 양식개발과장(전남), 국방대학원에 파견 중인 김덕일 전 여수지방청장(전남), 휴직 상태인 민경태 전 울산지방청장(전남) 등 6명으로 집계됐다.

/임동욱기자 tuim@kwangju.co.kr

현장과 시각

의원 복지카드 반납하심이...



정후식
정치부 차장

광주·전남지역 자치단체들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수혜 대상에 지방의원들까지 포함시켜 예산 낭용이라는 지적과 함께 '선심성'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의정활동과 무관한 여행이나 헬스, 골프연습, 학원비까지 혈세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며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행·의정 감시 전담연대는 지난 13일 전남도와 일선 시·군이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를 도입하면서 그 수단으로 발급한 복지카드 현황을 공개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도내 23개 자치단체 가운데 전남도와 여수, 목포, 순천시 등 15개 자치단체가 이 제도를 도입했으며, 나주시와 장흥, 신안 등 3개 시·군도 조만간 시행할 예정이다.

문제는 복지카드를 발급한 모든 자치단체가 지방의원들에게도 똑같은 복지혜택을 부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전남도는 51명의 의원들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하고 단체보험도 가입해줬다. 여수시는 시의원 25명에게, 목포시와 순천시도 각각 의원 22명에게 복지카드를 지급했다.

이에 따라 복지카드를 발급받은 공무원과 의원들이 1년동안 사용할 수 있는 복지점수는 평균 700점으로, 금액으로 환산하면 70여만원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관련 예산은 연간 전남도가 28억2천만원, 목포시 10억2천만원, 무안군 2억4천만원 등 도내 자치단체 평균 6억9천6백만원으로 총 120여원을 훌쩍 뛰어넘는다.

광주지역의 경우 6개 자치단체 가운데 광주시가 지난해 9월부터, 5개 구청은 올해부터 복지카드를 도입했고 이 중 4개 자치단체는 의원들에게도 지급했다.

하지만 광주시와 남구 등은 '관련 규정이 애매하다'며 예산 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

지방의원까지 수혜 대상에 포함됨으로써 말단 공무원들에게 돌아가야 할 복지혜택이 줄어들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한정된 예산으로 인해 일용직 등은 제외되고 있다는 것이다.

물론 지방의원도 '선출직 공무원 아니냐'는 항변도 있다. 반면 의식 있는 일부 의원들은 품위 유지 및 청렴 의무를 들어 그리 답답지 않다는 반응이다.

민선 4기 지방의회는 그렇지 않아도 특정 정당 의원으로 집행부와 의회간 '견제와 균형'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이같은 상황에서 집행부가 감시기관인 지방의회 의원들에게까지 공무원과 같은 복지혜택을 주는 의도는 의심을 살만한 여지가 충분하다. '자진 반납으로 의원들 스스로 권위를 지켜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것도 이 때문이다.

/who@kwangju.co.kr

북송 비전향 장기수 리인모씨 숨져

北 "南서 당한 고문으로 서거" 18일 인민장으로 치러

1993년 3월 관문점을 거쳐 북송된 비전향장기수 리인모(89)씨가 16일 사망했다. 북한방송에 따르면 노동당 중앙위원회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 내각은 17일 공동으로 리씨의 부고를 발표하고 "전 조선인민군 중군기자이고 비전향장기수인 리인모 동지가 남조선의 감옥에서 당한 고문의 후과(후유증)로 16일 7시에 89살을 일기로 애석하게 서거했다"고 전했다.

리씨의 시신은 인민문화공원에 안치됐으며 17일 조문객을 받은 뒤 18일 오전 8

시에 발인할 예정이다.

북한은 리씨의 장례를 '인민장'으로 치르기로 결정하고 김영남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을 위원장, 최태백 최고인민회의 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김영일 내각총리, 김양건 통일전선부장 등 고위 당·정·군부 57명이 참여하는 장의위원회를 구성했다.

한편 리인모씨는 중군기자로 6.25전쟁에 참전했다. 체포돼 34년간 복역한 후 1988년 출소했으며 5년후 '장기방북' 형식으로 북한으로 송환됐다.

/연합뉴스

특정정당 배제... 통일축전 파행

남북관계 전반에 악영향

6·15공동선언 7주년을 기념해 평양에서 열린 민족통일대축전이 북한의 한나라당 의원 주석단(귀빈석) 참여 배제 조치로 파행을 거듭하다 남북갈등과 남북갈등을 노정시킨 채 성과없이 마무리됐다.

6·15 축전이 이처럼 파행을 빚은 것은 처음으로, 앞으로 8·15공동행사를 뿐 아니라 남북관계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 우려된다.

공동취재단에 따르면 이번 축전은 첫날 개최식과 환영 만찬은 정상적으로 진행됐으나 15일 본행사인 민족단합대회를 앞두고 공동 주석단이 출제어 입장하는 순간 북측 진행요원이 "한나라당 의원은 주석단에 올라갈 수 없다"며 행사를 중단시키면서 파행 사태가 벌어졌다.

이에 백낙청 남측 상임대표와 안경호 북측 위원장이 잇달아 만나고 실무진도 수 차례 협상을 가진 끝에 16일 밤에야 '특정 정당 배제' 대신 '주석단에 남·북·해외 공동위원장 4명과 연설자, 사회자 등 11명만 앉고 종단, 사회단체, 정당대표 등은 모



17일 북한측의 한나라당 의원 주석단 착석 거부로 6·15 남북통일대축전이 파행을 빚은 것과 관련, 한나라당 박계동 의원이 평양 순안공항에서 남북축전에 참가한 종교계 지도자들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목선 탈북' 일가족 4명 한국 도착

지난 2일 동해를 표류하다 일본 아오모리(青森)현 항구에 도착한 탈북자 일가족 4명이 16일 오전 나리타(成田)공항을 통해 출국, 한국에 도착했다.

이들은 이날 새벽 임시로 머물던 이바라키(茨城)현 우시쿠(牛久)시의 법무성 입국관리국 시설을 떠나 인근 나리타 공항으로 향했다. 일본에 도착한 지 2주일,

북한 청진(淸津)을 떠나지 3주만이였다.

일본 정부는 이들의 한국 이송에 앞서 우익세력의 공격 가능성이 있다는 등의 첩보가 입수됨에 따라 이들의 안전을 가장 우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출국 전날 밤까지도 법무성 입국관리국측은 이들의 한국행을 철저히 보안에 부쳤다.

/연합뉴스

두 주석단에 앉지 않는다'는 북측의 절충안에 합의했다.

한나라당 의원들은 이에 대해 "북의 한나라당 정적이 변화하지 않는 상황에서 대외에 참석하는 것은 의미없다"면서 합의를 거부하고 민족단합대회에 참석하지 않았다고 공동취재단은 전했다.

주석단 착석 문제로 축전이 파행함에 따라 남북 사이에 물론 남, 북측 각 내부에서도 한나라당의 주석단 참여와 민족단합대회 개최 여부를 둘러싸고 격론이 벌어지는 등 이틀간 엄청난 진통을 겪었다. /연합뉴스

SASA & 톰과제리의 새로운 이름 "SASA"
아이들을 위한 엔터테인먼트 기업으로 도약해가는 새로운 SASA의 모습을 기대해주세요.

최고의 A/S
아동가구 13년! 아동학생가구 시장의 자존심을 세워드립니다.
신속한 정비: 제품 배송과 동시에 고객님의 정보를 전산화하여 A/S신청 시 보다 빠르고 정확하게 처리가 가능합니다.
정확한 처리: SASA 만이 SASA 가구를 A/S할 수 있으며, 수리하는 시간도 단축됩니다.
저렴한 비용: 제품 결함시 1년간 무상A/S, 이후에도 저렴한 비용으로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용중 불편한 점이 생기면 A/S센터에 연락하여 신속하고 정확한 A/S를 받을 것을 권장합니다.

최고의 Design
프린세스 원목 시리즈 출시
프린세스 원목시리즈는 미송 원목을 사용한 친환경 제품입니다. 가볍고 미려한 목리(나무결)를 가지고 있으며, 질서적으로 가공하였기에, 웅이, 뒤틀림이 없습니다. 사이즈가 넉넉해 어린자녀라면 부모님과 함께 잘 수 있으며, 중고생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전국 A/S센터 대표번호: 1588-4434
홈페이지 www.sasakid.co.kr

세정아울렛 2층 임페리얼 광주상무점 OPEN

EVENT

여름 신상품
30~50% SALE (일부품목 제외)

햇살이 더욱 세롭게 느껴지는 계절. 하이브리드 캐주얼 임페리얼이 자신의 삶과 가치를 소중히 생각하는 당신을 초대합니다. 삶의 멋을 즐기는 당신에게 잠정 단독의 브랜드 자부심을 누릴 수 있는 이름, 임페리얼 그 주인공의 고귀함을 만나고 싶습니까?

구매고객님께 사은품 증정 | 매장위치: 광주 세정아울렛 2F(엘리베이터 앞 에스컬레이터) T.062)384-8800